

또 내 사람 챙기기... 광주 남구 산하기관 측근 채용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직원 채용 대표이사 이어 팀장도 측근 임용 '보은 인사' 위한 도구로 전략 지적 "채용은 공정한 절차로 진행" 해명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 신설 산하기관에 남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남구 부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일어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해당 기관 기획운영팀장으로 또 다른 측근이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이 구청장 측근을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신설 산하기관인 사단법인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의 직원 채용 절차 결과가 발표됐다.

임용은 13일간 채용공고를 내고 5일간의 원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시험과 2차 면접으로 진행됐다. 면접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자질 △업무능력 △전문성 세 항목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면접위원별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해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채용됐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은 총 6명으로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된 뒤 정규직원으로 채용된다.

문제는 기획운영팀장으로 김병내 남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임용되면서다.

A씨는 지난 민선 7기 당시 광주 남구청내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민선 8기를 위한 구청장 선거에서 당시 김병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민선 8기

에 들어선 뒤에는 광주 남구 산하 스트리트푸드존 운영본부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김 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채용된 기획운영팀장 직위는 기획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외기관 협력 및 조정 업무 등을 맡는다. 임기는 시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알려진 연보수는 45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센터는 연이은 내정설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현 전 남구 부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임용됐으며 센터 설립 전부터 구청 내부에서는 이현 전 부구청장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내정설이 파다하게 일었다. 이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2년으로 최대 8800만원의 연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갈등은 지속됐다. 지난해 7월30일 남구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중 3명의 반대로 부결됐던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이 하루 뒤인 31일 열린 제 305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의원 11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기획총무위원회(이하 기총)가 부결한 안건을 지방자치법을 이용해 강제 상정·통과시킨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차기 남구청장을 두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져 진영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구의회가 기총에서 부족한 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합심해 강제로 통과시키면서 '의회

기능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센터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해 분산된 주민 중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행 중인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단법인을 통해 주민 주도로 사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두 센터를 업무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사단법인으로 묶을 필요가 없고 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마련, 리모델링 비용, 대표이사 등 추가 인원 채용 등으로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이어 팀장 직원도 구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채용되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센터가 구청장의 '식구 챙기기'를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으나, 대표이사 임명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주요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특히 센터가 구청장의 '측근 챙기기' 용도로 전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노조 차원에서 사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채용은 자격검증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기획운영팀장으로 임용된 A씨도 "스트리트푸드존 운영본부 계약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모집 공고가 나왔길래 스스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지원했을 뿐이다"며 "채용 절차 이면이나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민헌기·윤준명기자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 예방 손씻기 배우고 있다.

13일 광주 북구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손씻기 교육에 참가한 북구청 어린이집 아이들이 감염병예방팀 직원들로부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배운다. 나건호 기자

전남대 '총장 공백' 장기화될 듯... 직무대행 체제

탄핵 정국 여파로 임용 절차 지연 에너지공대 총장은 13개월째 공석

전남대학교의 신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탄핵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현 정성택 총장이 14일 학교 용봉홀에서 이임식을 갖게 됨에 따라 15일부터 김병인(사학과 교수) 교학부총장이 총장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전남대는 지난해 9월25일 제22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천 후보는

이근배 교수와 송진규 교수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이후 넉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차기 총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지도 불확실해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두 차례나 탈락하면서 올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글로벌대학 재신청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시행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임 총장이 빨리 임명돼 대학 행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는 13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정부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 온 윤의준 초대총장이 지난 2023년 12월28일 자진사임한 뒤 박진호 연구부총장이 현재까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학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에너지공대 2대 총장을 위한 공모에서 3명의 후보군을 압축, 올해 1월 중 차기 총장 후보 선 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탄핵정국 등 여파로 안건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최동환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